

미래산업 핵심기업 유치 추진

군산시, 지역 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위해

군산시가 미래산업 핵심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과거 자동차·조선분야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 동력산업(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분야의 기업 유치를 산업구조 다각화를 시도했으며 이에 따른 성과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차전지소재 8개사, 신재생에너지 1개사, 첨단소재 분야 3개사 등 총 22개사와 8,200여명의

투자금액과 1,200여명의 신규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협약기업의 투자완료 시 지역 관련 기업과의 상생,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4월 (주)전보비스 착공을 시작으로 이피캠펙(주) 성일하이텍(주) (주)에이머티리얼즈, (주)메타솔루션 등 이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이 착공신고를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주)엔드디, (주)케이팩스, 대주전자재료(주) 등 협

약 체결한 기업들의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산업단지는 대규모 부지 제공 장기임대용지 지원 및 우수한 인센티브 등으로 타 지역 산업단지 대비 많은 이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가 본격화 되면서 이차전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망이 밝은 만큼,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우수 기업 유치를 통해 군산시 성장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가 주민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시민체감 행정서비스 제공 '결실'

익산시, 민원행정서비스 주민편의 높여 행안부 '장관상'

익산시가 주민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주민등록·인감(서명확인) 제도 분야에서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발전에 기여한 10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전국 평균 8.69%보다 높은 18.54% 성과를 보여 민원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대신해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위조사고와 대리발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지난해 주민등록 전문관 제도를 처음 도입해 종합민원관에 배치하고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주민등록 교육자료를 발간해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을 체계화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민체감 행정서비스를 발굴해 여러 지자체에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핵심리더 기관이 되려고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매월 민관학연계 취업박람회 '청년취업 정조준'

익산시, 매월 셋째주 화요일 청년시청서 우수기업 매칭 채용포털 오픈라인... 취업률 극대화

익산시가 민관학 일자리 거버넌스 형식의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청년취업에 시황을 건다.

시는 우수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취업박람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해 현재까지 청년시청에 가면 일자리를 찾는다는 목표로 채용포털 오픈라인 버전으로 취업률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2023 성공취업 디아리움 취업박람회(이하 취업박람회)로 명칭을 정하고 '대한민국 제1호 익산청년시청'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고용노동부(고

용복지플러스센터), 익산상공회의소,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이 민관학 일자리 거버넌스 형식으로 개최함으로써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 박람회가 이달 17일 청년시청 6층에서 개최되며 지역 우수 중소기업인 합소이제약, 마더스제약, 기원전자, 부성테크 등 10개 기업이 참여하여 5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는 취업박람회 외에도 중간중간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중심의 채용설명회인 '청년취업 JOB콘서트'도

수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식품기업, 뿌리기업 등 영세·중소기업에게는 신속하게 근로자를 연결해 주고, 지역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올해 사업비로 3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는 취업촉진금으로 100만원(6개월후 50만원, 12개월후 50만원)을 지급하고, 참가자에게는 면접비 및 청년포인트 제공, 이미지컨설팅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취업박람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각종 일자리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농업미래, '청년후계농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익산시가 농업 진출 촉진과 미래 농업 인력 성장을 위해 '청년 후계농·후계농업경영인'을 모집한다.

시는 이달 27일까지 농식품부 주관 청년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

먼저 청년후계농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1983.1.1. ~ 2005.12.31.출생자)로 독립경영(경영주) 3년 이하이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최종 선발은 2~3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되면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최대 3년간 월30~110만원씩의



영농정착지원금이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을 위한 후계농 육성자금(융자)을 최대 5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또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우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서 우선 지원한다.

지원 연령이 가장 넓은 일반 후계농업경영인은 만18세 이상 만49세 이하(1972.1.1. ~ 2005.12.31. 출생자) 독립경영(경영주) 10년 이하의 농업인이 대상이다.

최대 5억원 한도,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연리 1.5%의 융자 조건으로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을 위한 후계농 육성자금(융자)을 지원한다. 이달 27일까지 농촌지원과로 방문접수해야 하며 최종 선발은 서류평가 및 심의를 거쳐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젊은 영농후계자 지원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이차보전사업, 임차 지원사업 신청을 농촌지원과에서 받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추진

군산시는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예방코자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공장밀집지역 등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1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시기간 동안 시는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및 주변하천, 관내 폐수 다량배출사업장 및 취약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중점감시·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또 설 연휴기간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환시설을 설치·운영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연휴 전(11. ~ 1. 20.)에는 환경오염물질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에 대한 사전계도와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협

조문을 발송해 1차적으로 취약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하천에 대한 집중적인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휴기간(1. 21. ~ 1. 24.)에는 산업단지 및 주변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장대현 환경정책과장은 "설 연휴기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행위 및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상담창구(☎128)를 운영하고 있으니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2023년까지 연장 운영

군산시는 11일 지난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공공심야약국이 2023년까지 연장 운영된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심야시간과 휴일에도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약국이다.

공공심야약국은 나운동에 위치한 단골은누리약국(하나운로 38, ☎465-9998)으로 지난해 공공심야약국 이용은 20~40대 연령층 이용자 수가 많았으며, 해열·진통·소염제 관련 의약품 구입이 많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연중무휴 심야시간대 시민들에게 안전한 의약품 복용 환경을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의약품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 점검

군산시는 11일 전라북도·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다가오는 설 명절 대비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9일간 실시되며, 설날 명절에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과대포장 점검 결과, 포장공간 비효율, 포장횟수 등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제조사에 포장감사 결과 법적 기준에 초과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 인쇄 또는 각인,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 적정 포기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